

# 호남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RE300' 본격 추진

### 광주 수소생산기지·전남 해상풍력·전북 새만금 에너지단지 조성 2050년까지 호남 전력사용량 300% 생산, 추가 생산분 타 지역 송전 광주시·전남도·전북도·민주당 공동 국회서 용역 착수보고회

광주 수소생산기지로 탈바꿈해 '탄소 뉴딜'을 이끌고, 전남은 신안 8.2기가와트(GW)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거점이 된다. 전북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에 3기가와트 규모로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광주와 전남·전북이 에너지경제 공동체로 거듭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공동체'(호남 RE300) 계획이 보다 구체화돼 추진된다.

24일 국회에서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호남 RE300은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을 결합한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 광역연합을 의미한다. 2050년까지 호남이 지역 전력사용량의 30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고, 200%의 추가 생산분을 타 지역·국가로 송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용역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가장 큰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방안과 전력자립망 구축, 이익공유 시스템 설계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보고회는 호남 RE300 용역 착수 경과보고 및 용역계획 발표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연 원내대표, 이음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우병기 전북 부지사와 용역 평가위원단이 참석했다.

또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송갑석 광주시장위원장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홍익표 정책위의장(민주당)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광재 K-뉴딜본부장,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보고회에 참석한 당 핵심 위원회 위원장들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했다.

이낙연 대표는 "몽골·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에너지 네트워크인 동북아 슈퍼그리드에서 호남이 중심 기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신재생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하는 구상과 호남 RE300 구상을 실현하면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또 "호남은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주도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특정분야 중심의 광역경제권 구상을 호남이 선도하는 것이 매우 호남답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호남 RE300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해상풍력 등 대규모 발전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역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과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허브 역할을 호남이 할 수 있도록 에너지 플랫폼 역할을 하는 한국에너지공단 관련 특별법을 조기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갑석 광주시장위원장은 "그린뉴딜을 매개로 한 '호남뉴딜'의 핵심"이라며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등 초광역권의 경제 프로젝트로서 호남이 모색해온 새로운 미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가는 시작점이며, 호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에너지원"이라고 호남 RE300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발표된 용역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1단계는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자립 전력망을 구축해 '호남 RE100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2단계는 2040년까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수소연료전지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고,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타 지역에 분배 및 판매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

망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 3단계는 2050년까지 그린수소 터빈 등 대규모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고 수출용 대용량 ESS 개발 및 생산하는 'RE300 에너지 수출'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소요예산 규모, 경제적 타당성, 계통망 확보 등 경제·기술적 분석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당연구원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K-뉴딜위원회와도 관련 계획이 공유되는 등 추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545동 확보... 전국 최대

### 다문화가정·귀농귀촌자 우선 측량수수료·취득세 감면 혜택

전남도가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 조성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나선다. 올해 물량 전국 7760동 중 20%에 해당하는 1545동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았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해 농촌 지역의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를 비롯 빈집 자진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등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각 시·군에서 선정한다. 단 연면적 150㎡ 이하의 농어촌주택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 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을 진행할 경우 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1년 거주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주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 연 2%의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수수료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 원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근로자 숙소 용도로 주택을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과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이 확대돼 내·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대된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어촌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현행 2%인 대출 금리를 1%로 인하하도록 적극 건의해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복지재단, 광주복지연구원으로 거듭난다

### 설립·운영조례 개정안 공포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인 광주복지재단이 광주복지연구원으로 거듭난다.

광주복지연구원은 25일 '광주복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 공포 시점에 맞춰 공식 업무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명칭 변경, 기능 조정 등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지난 8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광주복지연구원은 지난해 7월 개원한 광주사회서비스원과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복지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사무처는 복지정책 연구, 산하 기관인 빛고을노인건강타

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운영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노사협의체를 중심으로 매월 혁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백수 광주복지연구원 사무처장은 "코로나 팬데믹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복지정책의 변화도 요구되는 만큼 패러다임 전환에 맞는 복지정책 전략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책임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책 연구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지역사회서비스센터 등 3개 기관을 광주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남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상반기 구축 완료

지난해 1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에서 전남도(광역형)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강진, 영암, 함평, 완도, 구례, 해남 등 10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으며, 총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올 상반기 중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완료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도내 22개 시·군

CCTV 영상정보를 연계한 후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구축이 완료되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스템은 CCTV영상을 검색하려면 시·군 CCTV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지만, 통합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도(재난안전상황실), 112·119종합상황실, 경찰서, 법무부(위치추적관

제센터) 등 관련 기관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 도민의 안전·교통·시설 등을 24시간 감지·분석할 수 있다. 특히 방범·방재·교통 등 개별서비스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112센터 긴급영상·출동 ▲수배자 검색 ▲119 긴급출동 ▲재난상황 긴급대응 ▲전자발차 착용자 위반행위 시 범죄 예방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 및 8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나주, 강진, 영암, 함평, 완도)을 연계했으며, 오는 6월까지 남은 2개 시·군(구례, 해남)에 대한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신규어가 정착 '수산분야 멘토링 사업' 시행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신규어가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은 선정된 지 3년 이내 귀어 및 어업인 후계자와 올해 귀어창업자금(예정)자들이 지원대상이다.

창업어가로 선정되면 수산 신지식인과 선도어가, 수산분야 기술사 등 수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후견인들과 1:1로 연결돼 양식기술, 경영지도 등

어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지역별로 원도 5가구, 여수 4개소, 목포·해남·고흥·영광·진도 각 2가구, 강진 1가구씩 창업어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3월 19일까지 후견인들과 멘토링 약정체결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www.jeonnam.go.kr)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ofsi.jeonnam.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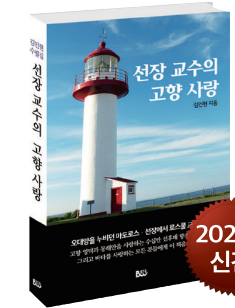
바다에는 **李愴**무공, 육지에는 **鄭愴**무공이 있었다!

충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2021 신간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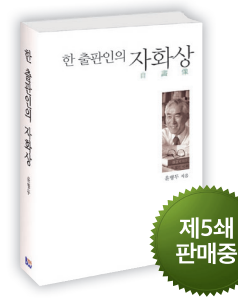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록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기를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기가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